

# 기업은 지금 구조조정 '공포'

### 은행권 '옥석 가리기' 전 업종 확대... 지역 기업 퇴출판 경제 악화 우려

은행권이 주도하는 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이 오는 6월 말까지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건설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가 또한한 부실기업 퇴출로 인한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채권 은행들은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는 3월부터 일제히 신용위험 평가를 시작한다.

은행들은 4월까지 거래 기업의 자보상매출과 자산 건전성 등을 우선 점검하고 5월부터는 영업 전망과 경영·재무 위험, 해당 산업의 전망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어서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감당 못하는 기업,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우주의 이하 등급을 받은 기업, 외부 회계감사에서 부정적 의견을 받은 기업 등이 주로 평가 대상이 된다.

은행들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6월 말까지 거래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나눈 뒤 C등급(부실징후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접어들고 D등급(부실기업)은 정리한다.

이번 평가는 2007년 11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에 맞춰 은행들이 맺은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 협약'에 따른 것이다.

2007년 결산자료로 이뤄진 지난해 상반기 정기 평가 때와는 달리 지난해부터 경기가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정기 평가에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은행권은 업황이 나빠지는 자동차부품업, 해운업, 반도체 부품·장비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 이번 정기 평가와 맞물릴

경우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상시 또는 정기 평가시스템을 가동해 기업별로 '옥석가리기'에 나설 방침이지만 평가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도급순위 101위~300위 중 신용공여액(대출금) 50억원 이상인 94개 건설사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300위 내의 광주·전남 건설사는 모두 26곳(광주 9, 전남 17)으로 이중 14개사가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업과 조선업 1차 구조조정에서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일각에서 불공정 시비가 일었다"며 "또 다시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의류 매장엔 벌써 봄

사한 색깔의 봄 옷을 일제히 선보였다.

29일 오전 광주 신세계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한 여성이 화려한 색상의 트렌치 코트를 살펴보고 있다. 입춘(2월 4일)을 앞둔 이날 광주지역 백화점업계는 화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 올해 공무원 연금 1조8천억 적자 예상

올해 공무원연금금이 1조8천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공무원연금금이 1조7천99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이만큼의 정부보조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0.17%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해 연금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 연체이자 함부로 못 물린다

### 금융원 개선...은행 이자 부과한 고객 통보

김모씨는 최근 광주 C저축은행과 대출금 연체이자로 다툼을 벌이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C저축은행이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A씨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A씨가 대출이자 연체를 하자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30%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충분한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 고객의 연체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연체이자 징수방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대출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는 고객에 대해 '기한의 상실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지서 도달 여부를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이후에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하며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해야 한다.

일부 은행이 이자납입일에 통장잔액이 납입 이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이체하지 않고 미납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원은 이자납입일에 통장잔액이 납입 이자금액에 미달해도 잔액 범위 내에서 이체하고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장필수기자 bungy@

## 주가 이틀째 상승... 1160선 회복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급등했던 증시가 이틀째 상승해 1,160선을 회복했다.

29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58포인트(0.74%) 상승한 1,166.56, 코스닥지수는 2.30포인트(0.64%) 오른 363.98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미국 뉴욕증시가 급등한 데 힘입어 7.84포인트(0.68%) 오른 채 출발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한때 1,180선에 근접하기

도 했다. 그러나 개인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앞서 미국 증시는 미 행정부가 금융기관의 악성 자산을 전담하는 기구인 '패드뱅크'를 운영할 것이라는 소식에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며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40원 오른 1,378.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현금영수증 장려 복권당첨자 확대

현금영수증 사용 장려를 위해 이달부터 복권 당첨자 수가 1천 명 이상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고시했다.

이 개정안에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복권 4등과 5등 당첨인원을 매달 1천 150명 늘리기로 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복권은 전체업종과 발급저조업종으로 나눠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발급저조업종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예체능 학원, 치과 성형외과 등 보건업종, 장의사, 결혼상담소, 예식장 등 32개 업종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 미분양 주택 사상 최고

### 광주 12,672가구 전남 6,725가구

미분양주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총 16만2천570가구로, 전월보다 6천850가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미분양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3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지금까지는 지난해 7월의 16만595가구

가 최고였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11월 1만2천672가구가 미분양 주택으로, 전월보다 11.9%(1천349가구), 전년도에 비해서는 59.6%(4천732가구)가 급증했다.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005년 2천156가구에서 ▲2006년 6천506가구로 폭증한 뒤 ▲2007년 7천940가구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남지역도 지난해 11월 미분양 주택이 6천725가구로 집계돼 전년도 대비, 50.9%(2천269가구)가 증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11구길 100번 401호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구청앞) (062) 227-9970

## 광주 주민의 선택

무선 충전, 신상 대우, 1,000만원까지 가능!

### 새 담보대출 안내

신용보증, 사생활 보호, 원금 100% 지급

대출금액	이자율	대출기간	월 납입금	총 원금
1,000만원	10.4%	36개월	38,897	1,413,912
5,000만원	11.4%	36개월	172,500	6,408,000
1,000만원	11.7%	36개월	39,425	1,431,300

062-671-1199

## 봄/선/동 아이엘리시아

최대 프리미엄 혜택

062-671-1199